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박 영 신[†]

인하대 교육학과

김 의 철

중앙대 심리학과

정 갑 순

인하대 교육학과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어떠한 심리적 역동을 갖는가에 대한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의 사회적 지원, 성취압력, 자녀에 대한 기대, 부모에 대한 죄송함과 존경심 지각을 포함했다. 이러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심리특성으로서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성취동기, 그리고 행동특성으로서 공부시간과 학업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학업성취과정에서 과거의 성취도가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종단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차 표집대상은 개 초등학교 6학년 전체 961명이었으며, 그들이 중학교 1학년 시기가 되었을 때 개 중학교에 분산된 85명이 차 표집되었다. 그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83명 남 41명, 여 41명 91 차 표집되었고, 차 표집대상 학생의 부모에게도 질문지를 실시하여 아버지 72명과 어머니 76명이 표집되었다. 차 표집대상 중에서 학생과 아버지 어머니 자료가 모두 수집된 694명의 자료가 이 연구를 위한 최종분석대상이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과거의 학업성취도는 현재의 학업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이었으며,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공부시간에도 영향을 미쳤다. 2) 부모에 대한 죄송함은 성취동기를 높였으며, 성취동기는 공부시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 3)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증진했으며, 높아진 효능감은 학업성적을 향상시켰다. 4)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자녀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증진했으며, 부모의 성취압력은 성취동기를 높였다. 5)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학업성적에 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6)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학업성적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과거 학업성취가 현재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변인이며, 부모자녀관계와 자기조절학습효능감도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부모자녀관계, 학업성취, 종단연구, 사회적 지원, 성취압력, 자녀에 대한 기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1-B00445)

† 교신저자 : 박영신,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E-mail : yspark@inha.ac.kr

부모자녀관계와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가 왜 필요한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연구들(한성열, 1994)이 누적되어 왔고 그 중에 가정환경 변인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문은식, 김충희, 2003)도 많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학업성취과정에서 어떠한 역동을 갖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나 과학적 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국제비교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보이고 있는 탁월한 학업성취(PISA, 2000)가 국제사회에서 많은 주목(Kim, 2001)을 받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높은 학업성취의 기반이 되는 환경요인으로서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 변인을 고려(Kim, & Park, 2000)하고, 이들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한국 사람의 심리와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에 토대하여 접근해 볼 가치가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의 관심에 힘입어, 이러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한 예로, 한국 사회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분석을, 자기효능감과 부모 및 문화적 영향의 면에서 검토(Kim & Park, in press)한 결과들이 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이 시사하고 있는 바처럼, 한국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이 있지만, 한국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갖는 높은 교육적 기대와 사회적 지원 및 자녀양육방식 등이 서양의 부모자녀관계와는 다른 독특한 면이 있고(Kim & Choi, 1994), 이것이 한국 사회의 독특한 교육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의 학업성취과정에 작용하는 부모자녀

관계 변인들이 문화적으로 다양하며, 그 영향력도 다양한가? 아니면 부모자녀관계와 학업성취에 관한 보편적인 원리가 문화적인 특징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인 법칙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그 주제 자체를 다루는 선행연구들(김의철, 2000; Kim, 1999)을 참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이 연구에서의 기본 입장이 전자에 토대하고 있음을 먼저 명확히 밝히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서양문화에 토대한 개념들을 빌려와서 한국인의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는 개념 틀로 사용하거나, 서양의 심리학 이론에서 개발된 측정 변인들을 그대로 번역하여 한국 사람을 표집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용할 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심리적 특징과 행동기제에 대한 관심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고, 보편적인 심리학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변량 부분을 간과하는 것(Kim, Park, & Park, 2000)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 심리학은 단순히 일반심리학의 보편적인 법칙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김의철, 박영신, 1999b). 이러한 과학적 방법의 하나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은 이미 심리학 분야에서 많은 공감대(Kim, 2003)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최근에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최상진, 2000)이 있었고, 다양한 시도와 실증적 연구들(정태연, 류원정, 2004)이 있어 왔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부모자녀관계의 발달(방희정, 2000), 성취의식(박영신, 2000), 정서와 건강(전경구, 2000), 대인관계(이종한, 2000) 등 구체적인 연구 주제들을 토

착심리와 문화심리의 시각에서 정립해 보려는 노력(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0)이 있었다. 한국 심리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토착심리와 문화심리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는, 이러한 시각에 토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연구해야 한다는 인식과 지적은, 연구내용과 방법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발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일련의 연구들 중에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토착심리가 자녀들의 학업성취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박영신, 김의철, 2004a)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측면들을 경험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학업성취과정과 관련된 심리적 행동적 변인들과 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 이론적으로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되어 온 한국인의 토착심리와 문화에 기반을 둔 연구의 필요성(Park, & Kim, 2003)을, 구체적인 측정과 변인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시도와 노력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시도’의 선부름이나 빈약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에 토대를 둔 시도의 누적은 이론을 더욱 정교화하고 심층화하는데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는 성취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는 어떠한 토착적인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부모자녀관계가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성취과정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한다.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연구 문제들을 탐구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그 한 예로,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취의식에 대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를 들 수 있다.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이 무엇인지, 그러한 성공에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등이 분석되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에 대해 가장 자부심을 가지며, 그러한 성취를 위해 부모로부터의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력, 인내, 의지 등으로 대표되는 자기조절이 성공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부각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연구(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에서도,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가 학업성취과정에서 작용하는 심리적인 역동들이 시사되고 있다.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해 죄송한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학업에 소홀함’이라는 반응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부모와 갈등을 느끼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도 ‘학업문제’가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또한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로는 ‘높은 교육열과 지도’라는 범주가 다섯 번째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한국 청소년들이 학업에 소홀할 때 부모님께 죄송함을 느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업문제로 인해 부모와 갈등을 겪으면서도, 부모님이 교육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도해 준다고 생각할 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졌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에서 교육문제나 학업성취가 매우 특별한 심리적 역동을 유발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박영신, 2000)는, 성

취의 핵심적인 요소로 노력이나 의지 인내와 같은 자기조절의 중요성과, 학생과 성인 모두 학업 성취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특별히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자녀의 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인의 성취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사회적 지원 중에서도 정서적 지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또한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열망과 같은 가족 중심의 가치지향이 강하였으며, 성취를 위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한국인들은 인식하였다.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 자녀의 성취행동 뿐만 아니라, 이와 대조되는 이탈 행동, 그리고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Park & Kim, 2004) 되었다. 예컨대 일반 고등학생의 부모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청소년의 부모도 자녀의 학업문제(학업성적, 대학진학, 교육문제, 진로문제 등)를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운 점으로 지적인 사실로 미루어 보아, 부모들의 자녀양육과정에서 자녀 학업문제의 비중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보호관찰 청소년도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모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믿고 신뢰하는 이유로서 혈연관계가 가장 중요하였다. 혈연관계에 집착하는 경향은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두 부모집단 모두, 자녀가 성실한 태도를 갖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는 공통점이 있음으로써,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측면이 발견되었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부모와 자녀가 혈연관계에 토대하여 절대적인 신뢰(Lee, Park & Kim, 2004)를 하는 경향은, 직장에서 상사나 직

장동료를 신뢰하는 이유로서 관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가장 중요(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4)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관계문화에 토대한 인간관계 중심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정서적인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신뢰의 두 번째 이유로 중요하였으며, 성실성과 가족과 같음이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업무처리능력은 그 다음 순서로 지적되었다(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4). 그러므로 이윤을 주된 목표로 추구하는 기업에서조차 한국 사람들은 업무처리능력보다는 가족적인 인간관계와 정서적인 교류를 상대방 신뢰의 중요한 기준(김명언, 이영석, 2000)으로 하는 일관된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 양식이 다른 사회 조직에서의 인간관계 양식에 확대 적용(Park, 2002) 되고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자녀의 성취행동을 촉진(Kim & Park, 2003) 하듯이, 직장 상사의 정서적 지원이 구성원의 신뢰와 성취를 북돋워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청소년과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에서도, 학업성취와 관련된 토착심리를 시사하는 결과들이 확인되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 경험으로 학생은 학업과 인간관계를, 어머니는 가정생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는데, 가정생활 스트레스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내용은 가족관계 갈등과 자녀교육 문제였다. 스트레스 대처방법으로는 학생과 부모집단 모두 스스로 노력하고 인내하는 자기조절대처를 가장 많이 하였다. 과반수 이상의 학생과 부모가 사회적 지원의 내용으로서, 격려와 위로로 대표되는 정서적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노력으로 대표되는 자기조절의 중요성은, 삶의 질에 대한 연구(박은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에서

도 동일하게 밝혀졌다. 즉 국민들의 근면과 노력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으며,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 문화/여가생활, 원만한 인간관계, 교육수준과 같은 범주들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양한 주제들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들은, 한국 사람들이 학업성취에 대해 매우 높은 열망을 갖고 있고, 이것이 부모자녀관계를 통해서도 함축적으로 표현되고 있음(박영신, 김의철, 2003a)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성취의식을 분석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2)를 보면, 여섯 가지의 토착적인 심리특성들이 추출된 바 있다. 즉 학업성취에 대해 갖고 있는 강한 열망, 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노력과 인내로 대표되는 자기조절, 성취에 가장 도움이 된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로서 부모,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 자녀가 교육적으로 성취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가정이 원만하기를 추구하는 가족중심의 가치지향, 성취를 위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성취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가 핵심적인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와 학업성취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이상에서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성취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토착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심리적 과정과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두고, 검증된 결과들에 토대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토착적 부모자녀관계 모형’(박영신, 김의철, 2004b; Park & Kim, 2004)을 기본 틀로 하여 측정변인을 선정하였다. 부모자녀관계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 속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들 중에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성취압력’ 및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이에 따라 한국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갖게 되는 ‘효도’의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송함’과 ‘존경심’을,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하위변인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행동특성으로는 ‘공부하는 시간’ 및 ‘학업성적’을 학업성취과정의 핵심적인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한국의 자녀들은 왜 부모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한국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느끼는 죄송함은, 구체적인 잘못 때문에 갖게 되는 부정적인 죄의식과는 구별된다. 그것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의 높은 성취를 기대하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절대적인 헌신의 자세로 가능한 모든 사회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때, 자녀가 ‘철이 드는’ 순간에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기자신을 인식하면서 부모의 희생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갖고,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성취동기로 연결되는 심리적인 기제(Park, 2002)이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순종하지 않음’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침’, ‘학업 소홀함’, ‘효도를 못함’과 같은 이유들이 포함되었다. ‘순종하지 않음’의 범주 내에서 ‘말을 안 들음’이란 반응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짜증 냄, 대들음, 때를 씌, 말대꾸함, 심부름 안함, 버릇없이 행동함’의 순서로 포함되었다. ‘학업 소홀함’은 ‘공부를 못함, 공부를 안 함, 놀

기만 함'과 같은 의미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가족을 위한 희생과 고생, 성실함, 혈연관계와 같은 범주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성실함의 범주는 자랑스러움, 강인함, 인내심, 모범이 됨'과 같은 내용들을 내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해 볼 때, 한국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죄송할 때와 존경할 때의 심리적인 역동이 다를 가능성이 엿보인다.

부모에 대한 죄송함이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다른 변인 및 자녀의 심리특성 변인들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최중숙, 박영신, 김의철, 허희숙, 2004)가 있다. 부모에 대한 죄송함은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나 부모의 성취압력과 높은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자녀의 성취동기와도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개인지향 성취동기보다는 사회지향 성취동기와 더욱 밀접히 관련되었다.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도 약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고, 부모가 성취지향적인 가정의 자녀들일수록, 부모에 대해 죄송함을 많이 느끼고,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야 한다는 동기가 더 높았다. 그러나 이 결과는 단순상관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변인간의 인과적인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부모의 정서적 정보적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들이 있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a)이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정 학교 사회환경 변인들을 투입한 결과,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의미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자기효능감의 8

개 하위변인들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와 민병기(1999)가 도시와 농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에 대해 직접 효과를 갖는 매우 의미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분석(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각각 자기효능감에 대해 의미있는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성취동기 수준을 결정하는데도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밝히는 연구들이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자녀의 성취동기와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중다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사회적 지원에 의해 가장 설명변량이 높았다(김의철, 박영신, 1999a). 이와 마찬가지로 박영신과 김의철(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자녀의 성취동기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설명변량이 높은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정리해 볼 때,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Bandura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의해 확인되어 왔다. Bandura, Barbaranelli, Caprara와 Pastorelli(1996)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기대수준은 자녀의 자기조절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자기조절효능감은 학업성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자기조절효능감은 문제행동의 발생을 억제하고, 문제행동은 학업성취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Zimmerman과

Bandura(1994)의 연구에서도,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으면 학업성취효능감도 높아지고, 높아진 학업성취효능감은 글쓰기에서의 성취수준을 향상시켰다.

한국에서의 연구결과들도 학업성취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박영신, 김의철, 2003b)을 보여주고 있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와 양계민(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와 모의 사회적 지원 모두 자기효능감에 대해 의미있는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에 대해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부와 모의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확인되었으나, 연구모형에서 가정하였던 부와 모의 사회적 지원에서 학업성취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는 분석결과 삭제되었다. 여기에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은 학업성취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여가시간활용효능감, 주위사람 기대일치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 자기조절동기효능감, 사회성효능감, 관계효능감의 8개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표집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동일하게 검증되었다. 이 외의 여러 분석(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 Chung, Park, Kim, Park, 2004)에서도 다양한 부모자녀관계가 학업성취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한편, 청소년의 개인특성으로서 과거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현재의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은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근원에 대한 설명에 기반을 두고 있다. Bandura(1997)는 성공경험(enactive mastery experiences)이 자기효능감 정보를 가장 영향력 있

게 제공하는 자원이며,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높은 인지적인 성취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1999)하였다. 즉 성공적인 수행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이와 대조적으로 반복된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며, 이러한 자기효능감 수준이 성취수준과 정적인 관계에 있게 된다(박영신, 김의철 역, 2001)는 것이다. Zimmerman, Bandura 와 Martinez-Ponz(1992)의 경로분석 결과도, 과거의 학업성취도가 현재의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아동의 사전 성적은 아동의 성적에 대한 부모의 목표수준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부모의 목표는 아동의 성적에 대한 목표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는 아동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부모에 대해 지각하는 죄송한 마음과 존경심, 부모의 강력한 사회적 지원 및 자녀에 대한 성취압력과 교육적 기대와 같은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성취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청소년의 과거성취수준이 작용하고 있는 맥락 속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연구모형

이상에서의 이론적 배경과 경험과학적 결과들에 기초하여,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경로분석을 위한 기본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은 부모의 사회적 지원,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과 같은 가정의 심리적인 환경이, 청소년 개인의 자기효능감이나 성취동기와 같은 심리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공부하는 시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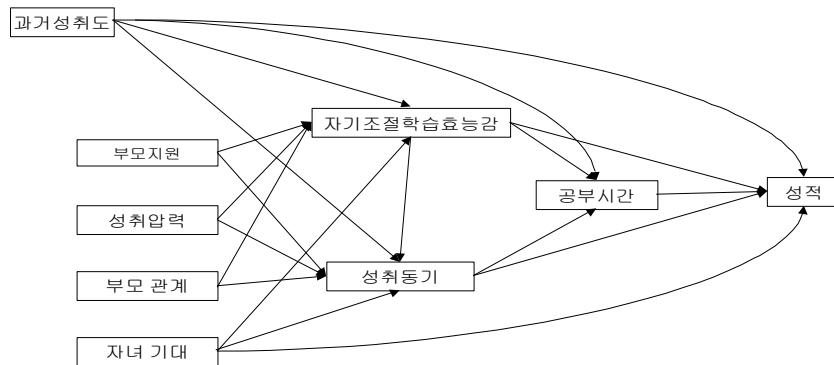


그림 1.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경로분석 기본모형: 과거성취도, 부모자녀관계,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현재의 학업성과 같은 행동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여기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은, 한국 청소년의 토착심리를 고려하여 부모에 대한 죄송함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 변인을 선정하였다. 또한 개인이 누적해 온 과거의 성취도가, 개인의 효능감이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쳐 현재의 학업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포함되었다. 물론 개인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과거의 성취도가 현재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주된 관심을 갖고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방 법

분석대상

이 연구의 청소년 표집대상은 I광역시의 평범한 2개 초등학교였으며, 6학년 학생 전체를 표집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한 결과, 961명(남 479명, 여 482명)이 종단 1차 표집대상으로 선정되

었다. 1년이 지난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동일 학생들이 재 표집되었다. 종단 1차 표집대상 학생들은 여러 중학교에 입학하였는데, 961명 중에서 추적이 가능한 학생들은 856명(종단 2차 표집대상)이었으며, 7개 중학교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830명(남 411명, 여 419명)이 계속 표집되었다(종단 3차 표집대상). 타 시도로 전학을 갔다든가, 학교를 중퇴하였든가, 운동선수로 학교 수업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의 다양한 이유로 계속 추적이 불가능하여 종단 표집대상에서 탈락한 비율은, 1차 분석대상인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10.93%였으며,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 13.63%였다.

종단 3차 청소년 표집대상 830명의 부모도 표집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부모집단이 총 1,489명 표집되었다(부-722명, 모-767명). 아버지 집단의 평균 연령은 44세였으며(최저-35세 최고-63세), 어머니 집단의 평균 연령은 41세였다(최저-31세, 최고-53세). 결과적으로 이 연구를 위한 경로분석에 사용된 최종분석대상은, 종단 3차 청소년 표집대상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료가 모두

수집된 경우로서, 청소년 694명, 부 694명, 모 694명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

이 연구의 측정도구는 학생용 질문지와 부모용 질문지로 나뉜다. 부모용 질문지에서는 부모 자녀관계 변인 중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을 측정하였으며, 학생용 질문지에서는 그 외의 모든 변인들을 측정하였다. 아래에서는 각 측정변인별로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과거 학업성취도

종단 1차 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을 측정하였다. 초등학생에게 주요 과목인 국어 산수 자연 과목 각각에서의 성적과 전 과목의 평균성적에 대해, 응답자가 ‘수, 우, 미, 양, 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수’는 5점으로, ‘가’는 1점으로 처리되었으며, 4개 문항에 대한 응답자 지각의 평균을 학업성적으로 하였다.

종단 2차 년도에도 응답자가 지각한 평균 학업성적을 ‘수, 우, 미, 양, 가’의 5점 척도 상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5점에서 1점으로 분포된 성적을 2차년도의 학업성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변인인 ‘과거 학업성취도’는 초등학교 6학년 단계와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의 학업성적 평균값으로 측정되었다.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는 연구자가 제작한 4개의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김의철과 박영신(1999a)이 제작한 질문지(중학생 Cronbach $\alpha=.93$)를 활용하였다. 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하위변

인으로 포함하는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답지는 7점 척도였다(1=전혀 아니다, 3=약간 아니다, 5=약간 그렇다, 7=매우 그렇다). 동일한 문항들에 대해 부와 모의 사회적 지원이 각각 측정되었으며, 평균을 낸 값이 부모의 사회적 지원 점수로 활용되었다. 측정변인의 신뢰도는 $\alpha=.95$ 로 매우 양호하였다.

둘째, 부모의 성취압력은 박영신(1989)이 제작한 10개 문항(중 $\alpha=.64$, 고 $\alpha=.76$)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은 동일한 문항들에 대해 부와 모의 성취압력을 각각 반응하였으며, 이 두 가지의 평균값이 부모의 성취압력 변인으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alpha=.86$ 이었다.

셋째, 부모에 대한 지각 변인은 이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죄송함과 존경심의 두 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각각 7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였다. 각 응답자들이 부와 모에 대해 지각한 결과의 평균을 구한 결과가 부모에 대한 죄송함과 존경심으로 측정되었다. 신뢰도는 두 하위변인 모두 $\alpha=.91$ 로 양호하였다.

넷째, 자녀에 대한 기대 변인은 이 연구에서 제작되었으며, 3개 문항 즉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수준, 자녀 학업에 대한 포부수준 및 자녀 직업에 대한 포부수준으로 구성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응답한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의 평균을 구하여 부모의 기대 수준 변인으로 하였다.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Bandura(1995)의 자기효능감 질문지에서 번역한 11문항(김의철, 박영신, 1999a) 중에 개념적으로 가장 관련이 적은 1 문항

을 삭제한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답지는 7점 척도로서 1='전혀 잘할 수 없다' 3='약간 잘할 수 있다' 5='잘할 수 있다' 7='매우 잘할 수 있다'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대체로 양호하였다($\alpha=.88$).

성취동기

Yu와 Yang(1994)이 제작한 질문지에서 개인지향 성취동기 5문항과 사회지향 성취동기 7문항을 발췌하여 번역하였다. 답지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alpha=.88$ 로 확인되었다.

공부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은 1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과외 공부하는 시간, 1주일동안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하루 동안 학교공부 외에 공부하는 시간을 응답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세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하여 공부하는 시간 변인을 측정하였다.

현재 학업성취도

중단 3차년도인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측정된 성취도로서, 본인이 지각한 현재의 평균성적과 다른 학생에 비교한 본인의 상대적인 성적을 측정하는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답지는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배경정보

청소년 표집대상을 중단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청소년용 질문지에서는 응답자가 소속한 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 성별,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우편물이 도착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중단 3차 년도에 실시한 부모용 질문지의 배

경정보에서는 부모의 연령, 자녀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실시 방법

중단 1차 질문지는 1997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2개 초등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협조를 얻어 6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중단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뒤에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학교방문으로 학교의 평가와는 무관한 본 중단연구의 중요성과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계속 연락하여 질문지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소속과 연락처를 분명히 기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소속 초등학교명과 학생 이름 및 성별 등 응답자에 배경정보에 기초하여 1년 뒤에 어느 중학교로 진학하였는지를 확인하여, 표집대상의 중학교와 배정된 반을 일일이 찾아내었다. 7개 중학교로 흩어져 추적이 가능한 표집대상들에게 중단 2차 질문지를 1999년 2월에 실시하였다. 1차 표집대상이었던 2개 초등학교 출신으로서 중단 1차 질문지에 응답을 했던 학생들을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 특별실에 모이도록 하였다. 2차 질문지 실시 과정에서도 중단연구의 취지와 유의점을 다시 설명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배경정보들을 확인하였다.

중단 3차년도 질문지는 표집대상이 중학교 3학년이 된 2000년 5월에 7개 중학교의 관리자와 교사의 재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표집대상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배경정보를 재확인하였으며, 중단 연구의 의의에 대해 충분히 전달하였다. 중단 표집대상들은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 각 학교의 특별실에 모여서 약 45분 동안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당

중학교 교장과 연구자의 이름으로 협조를 부탁하는 가정통신문을 만들어 부모용 질문지 및 선물을 함께 표집 학생 편에 발송하였다. 질문지에는 표집대상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ID번호를 부여하였다. 학생들이 수거해 온 부모용 질문지는 담임교사들의 협조로 최종 수합이 되었다.

연구결과

부모자녀관계,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성취동기의 수준

이 연구에 투입된 변인들에 대한 응답자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자녀관계 변인의 경우, 부모에 대한 죄송함 지각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에 대한 존경심 지각,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모두 5점 이상의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자녀에 대한 기대도 거의 5점에 가까운 값을 보였다. 부모자녀관계 질문지가 모두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이 중간에 해당하고, 5점은 ‘약간 그렇다’, 7점은 ‘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죄송함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부모가 성취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준다고 생각하고, 부모에 대해서 높은 존경심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부모가 정서적이고 정보적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원도 충분하게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부모들도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수준, 자녀의 학업 계속 정도에 대한 포부수준 및 자녀 직업에 대한 포부수준과 같은 면에서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의 심리특성을 보면, 성취동기와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서 모두 중간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성취동기도 높은 편이며, 자기조절학습효능감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의 경우는 표준편차가 크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1.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적의 평균과 표준편차

	M	SD
부모의 사회적 지원	5.13	.93
부모의 성취압력	5.43	.75
부모관계: 죄송함	5.50	.97
부모관계: 존경	5.28	.94
자녀에 대한 기대	4.99	.63
자기조절학습효능감	4.13	1.05
성취동기	4.89	.91
공부시간	3.76	4.52
학업성적	2.97	1.14

부모자녀관계,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적의 관계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적의 상호상관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부모자녀관계 변인들간의 상호상관을 검토해 보았을 때,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죄송함 및 부모의 성취압력과 극단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는 거의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던 낮던 상관없이, 자녀에 대해 정서

적이고 정보적이며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일수록, 부모를 매우 존경하고, 부모의 뒷받침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부모가 성취지향적인 압력을 준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부모에 대한 죄송함과 기타 부모자녀관계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존경심 및 사회적 지원과 매우 높은 정적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취압력과도 정적 관계에 있었지만, 자녀에 대한 기대와는 무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기대를 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또한 부모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일수록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으며, 부모의 성취압력을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사회적 지원 및 죄송함과 극단적으로 높은 정적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취압력과도 정적 관계에 있고, 부

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는 무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죄송함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는 관련이 없으며,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고 죄송함을 느끼며 성취압력을 부모로부터 많이 느끼는 청소년들일수록 부모에 대해 존경심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부모자녀관계와 심리특성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의 경우에 부모의 사회적 지원 및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그 외 3개 부모자녀관계 변인과의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심리특성으로서 성취동기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상관의 강도가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네 개 부모자녀관계 하위변인들과 매우 높은 정적 관계에 있었다.

부모자녀관계와 행동특성들간의 상관관계는 심리특성들보다 전반적으로 상관의 강도가 낮았다. 먼저 공부시간과 부모자녀관계를 보면 약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학업성적의 경우에, 부모의 자녀에 기대와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부모의 성취압력이나 존경심 지각과는 매우

표 2.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적의 상호상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부모의 사회적 지원	1.00									
② 부모의 성취압력	.53***	1.00								
③ 부모관계: 죄송함	.64***	.43***	1.00							
④ 부모관계: 존경심	.80***	.49***	.67***	1.00						
⑤ 자녀에 대한 기대	.10*	.34***	.03	.11*	1.00					
⑥ 자기조절학습효능감	.41***	.30***	.25***	.40***	.25***	1.00				
⑦ 성취동기	.50***	.46***	.40***	.44***	.17**	.64***	1.00			
⑧ 공부시간	.17***	.22***	.10**	.15***	.19***	.17***	.21***	1.00		
⑨ 학업성적	.09**	.16***	-.03	.11**	.53***	.38***	.29***	.19***	1.00	
⑩ 과거성취도	-	-	-	-	-	.27***	.21***	.13***	.65***	1.00

약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부모에 대한 죄송함과는 거의 무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기대를 높게 할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이 높았다. 그러나 부모에 대해 죄송함을 지각하는 정도와 자녀의 실제 학업성적과는 관련이 없었다.

한편 심리특성과 행동특성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볼 때, 공부하는 시간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보다는 성취동기와 상관의 정도가 약간 더 높았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학업성적은 성취동기보다는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약간 더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심리특성과 두 행동특성들이 모두 정적인 관계에 있지만, 상관의 강도로 미루어 보아, 성취동기는 공부하는 시간과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학업성적과 더욱 관련이 있었다.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경로분석: 부모에 대한 죄송함을 중심으로

그림 1에 제시한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분석모

형을 경로분석으로 검증함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을 죄송함 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경로분석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었다. 그림 2에서 현재의 학업성적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과거성취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성취도가 현재 학업성적과 직접 연결된 경로의 계수가 $P=.60$ 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였고,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였다. 또한 과거 성취도는 자기조절학습효능감($P=.23$)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현재 학업성적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과거 성취도가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보다는 낮았지만, 과거 성취도는 역시 학습자의 성취동기에 대해서도 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성취동기는 공부시간에 대해, 그리고 공부시간은 현재 성적에 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과거 성취도가 현재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기조절학습효능감 및 성취동기를 통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종합하여 볼 때, 과거 성취도는 현재 학업성적을 예언하는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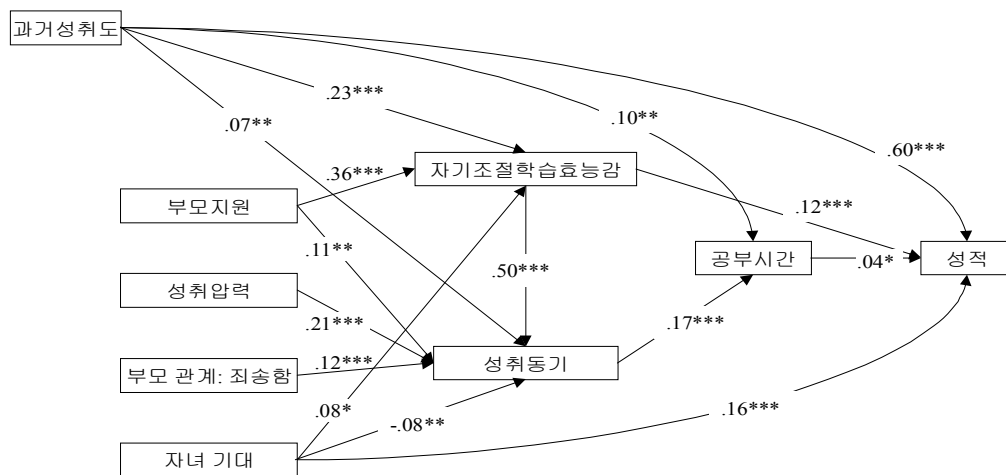


그림 2.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경로분석: 부모에 대한 죄송함을 중심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변인이 학업성취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P=.36$)에 대해 높은 경로계수를 보이고, 동시에 성취동기에 대해서도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성취압력과 부모에 대한 죄송함 지각 모두 자녀의 성취동기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경우에 경로계수의 값이 크지는 않았지만,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대해 정적인 방향의 경로계수를, 성취동기에 대해서는 부적인 방향의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학습자의 심리변인들간의 관계를 보면,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성취동기에 대해 $P=.50(p<.001)$ 의 매우 큰 경로계수를 보였다. 이는 그림 2에서 과거 성취도가 현재 성적에 대한 직접적인 경로계수 다음으로 큰 값이었다.

검증된 모형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현재의 학업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본인의 과거 성취도였다. 현재의 학업성적에

대해 매우 강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대해서도 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그리고 부모자녀관계 변인들도 학업성취과정에서 모두 중요하였는데,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성취압력 및 부모에 대한 죄송함 지각은 모두 자녀의 성취동기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자녀의 성취동기만이 아니라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대해서도 강한 영향력을 가졌다. 이와 같이 과거 성취도 및 부모의 사회적 지원에 의해 향상된 자녀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현재의 학업성적에 대해, 성취동기는 공부시간을 통해 현재의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경로분석: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중심으로

그림 2는 이 연구에서의 경로분석 모형(그림 1)을 분석함에 있어, 부모에 대한 지각 변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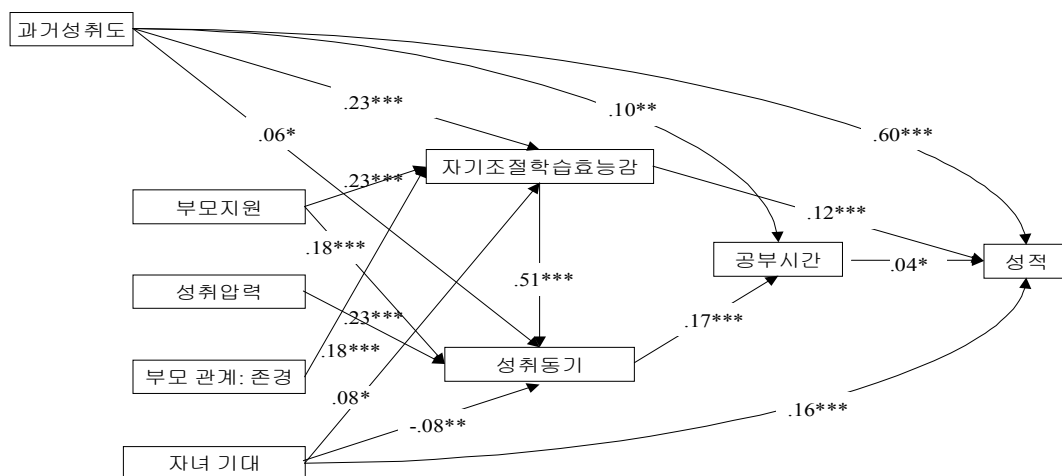


그림 3.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경로분석: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중심으로

죄송함으로 투입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한편 다른 변인은 모두 동일하게 하고, 부모에 대한 지각 변인을 존경심으로 대체하여, 학업성취과정을 경로분석한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었다. 경로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자녀의 성취동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P=.18$)을 나타내었다.

이 외의 모든 변인들 사이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수준은 그림 2에서와 같거나 거의 유사하였다. 과거 성취도는 현재 학업성적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P=.60, p<.001$)이 있었으며,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자녀관계 변인들을 보면,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자녀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모두 정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성취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심리특성 변인으로서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성취동기에 대해 매우 높은 경로계수($P=.51, p<.001$)를 나타내고 현재의 학업성적에 대해서도 정적인 경로계수를 보였다. 부모자녀관계와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통해 증진된 성취동기는 공부시간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공부시간은 비록 그 강도가 높지는 않으나 현재의 학업성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또한 자녀의 현재 학업성적에 대해 긍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에 토대하여, 첫째, 청소년의 학업성취과정에 기여하는 부모자녀관계의 특성과, 둘째, 학업성취과정에서 학습자의

심리특성 변인으로서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 및, 셋째, 학업성적 결정요인으로서 과거학업성취도의 중요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이어서 이 연구의 한계이자 후속연구 과제를 네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학업성취과정에 기여하는 부모자녀관계 특성

청소년의 학업성취과정에 기여하는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심리적인 역동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죄송함이나 존경심의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그러한 지각이 학업성취과정에서 독특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는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즉, 부모에 대한 죄송함 지각은 자녀들의 성취동기를 높였으며, 성취동기는 공부시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존경심 지각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증진하였으며, 높아진 효능감은 학업성적을 향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죄송함과 존경심이 학업성취과정에서 다른 심리적인 기제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시사(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를 확인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죄송함 지각이 성취동기와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최중숙, 박영신, 김의철, 허희숙, 2004)와도 일치한다.

둘째, 한국 부모들의 사회적 지원이나 성취압력 및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학업성취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모의 높은 사회적 지원은 자녀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성취동기도 높이고, 또한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성취동기를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증진된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성취동기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는 학업성적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결국 한국 청소년들이 탁월한 학업성취(Pisa, 2000)는 부모들의 사회적 지원과 성취압력 및 자녀에 대한 기대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자녀의 자기효능감(김의철, 박영신, 1999a;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및 성취동기(김의철, 박영신, 1999a; 박영신, 김의철, 2000)와 정적인 관계에 있음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학업성취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의 매개변인 역할

이 연구의 모형에서 매개변인으로 포함된 심리특성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성취동기였다. 경로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여러 변인들이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성취동기에 의미있는 경로들로 연결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 지각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성취압력 및 부모에 대한 죄송함 지각은 성취동기를 증진시켰다. 그런데 두 매개변인의 학업성적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의 경우는 학업성적으로 연결되는 직접적인 경로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취동기의 경우는 공부하는 시간에 대해 의미있는 경로로 연결되었지만, 공부하는 시간에서 학업성

적으로 연결된 경로가 정적인 경로계수 값을 보이나 값의 크기가 매우 작고 유의도 수준도 낮았다.

부모자녀관계와 연결하여 보면,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이렇게 향상된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학업성적을 높인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즉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이 부모자녀관계와 학업성적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성취동기의 경우는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성취압력 및 부모에 대한 죄송함으로 인해 향상되고, 이렇게 향상된 성취동기가 공부하는 시간을 증진시키며, 비록 공부하는 시간이 학업성적에 대해 정적인 관계에 있으나, 경로계수의 크기와 유의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강도가 매우 약하여, 공부하는 시간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학업성적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설명하기는 충분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자녀관계에 의해 성취동기가 영향을 받지만, 성취동기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과 직접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성취동기보다는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이 부모자녀관계와 학업성적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이다.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취도에 의해 향상된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학업성적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학업성취과정에서 학습자의 심리특성 변인으로서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학업성취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Bandura와 그의 동료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Pastorelli, 1996; Zimmerman & Bandura, 1994)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 Chung, Park, Kim, & Park, 2004)에서도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

학업성적 결정요인으로서 과거학업성취도의 중요성

그림 2와 그림 3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과거의 학업성취도는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공부하는 시간 및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재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학업성적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과거의 누적적인 성취가 현재의 성취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과거의 학업성취도가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통해 학업성적으로 연결되는 유의미한 경로들은, 성공경험이 자기효능감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 Bandura(1997)의 이론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과거성취도와 현재 성적의 관련성을 밝힌 Zimmerman, Bandura와 Martinez-Ponz(1992)의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현실에 시사하는 바는, 개인이 어떻게 하면 많은 성공경험을 누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성공경험은 후속 성취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장기목표보다는 단기목표가, 성취가 어려운 수준의 과제보다는 해결가능한 적절한 난이도 수준의 과제가, 성취경험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연구 과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누적적 과거성취도가

존재하는 현실적 상황의 맥락 속에서,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자녀들의 학업성취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갖는지에 대해, 경험과학적인 자료들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부모에 대한 죄송함이나 존경심과 같은 자녀의 지각, 부모의 사회적 지원, 성취압력, 자녀에 대한 기대와 같은 변인들이, 청소년의 과거성취도와 더불어,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이나 성취동기와 같은 심리특성 및, 학습시간과 학업성적과 같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죄송함은 자녀의 성취동기에, 존경심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부모의 성취압력은 성취동기, 자녀에 대한 기대는 학업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학업성취과정에서 학습자의 심리변인 중에 성취동기보다는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이를 후속연구 과제로 남기면서 네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변인의 폭을 구인타당도의 확보 차원에서 더욱 넓혀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죄송함이나 존경심 외에도 다양한 변인들이 한국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나 성취압력 및 자녀에 대한 기대 외에도 다양한 부모자녀관계 변인들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변인들이 학업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시도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한

국민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 모형(박영신, 김의철, 2004b; Park & Kim, 2004)에 의하면, 한국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 속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들 중에 이 연구에서 채택한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성취압력' 및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변인 외에도, 부모의 '헌신' '고생' '자애로움' '책임' '자부심'과 같은 변인들이 포함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자녀들이 부모의 희생을 느끼면서 형성하게 되는 '효도'의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송함'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취'와 같은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변인들을 이 연구에서 다루었는데, 이 외에도 자녀의 '응석부림' '감사' '의존' '기(氣)'와 같은 변인들을 추후 연구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자기효능감의 다양한 하위변인들을 연구모형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도 학업성취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분석모형에 투입한 결과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효능감만이 아니라 예컨대 학업성취효능감, 어려움 극복효능감, 관계효능감, 사회성효능감 등, 자기효능감의 다양한 하위변인들로 확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Bandura(1997)도 자기효능감이 하나의 통합적인 구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하위변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자기효능감의 다양한 하위변인들을 청소년의 성취행동 이해를 위한 분석모형에 포함함으로써,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와 학업성취의 맥락에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이 매개변인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변인 및 경로들을 보다 정교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교화된 변인을 토대로 여러 대안모형들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해 본다면,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변인의 정교화와 관련하여, 성취동기 변인을 개인지향 성취동기와 사회지향 성취동기로, 공부하는 시간 변인을 양적 시간과 질적 시간으로, 학업성적 변인을 주관적인 성취지각과 객관적인 성적 등으로 분류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 변인 중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부모가 응답한 것이고, 부모지원과 성취압력 및 부모관계(존경, 죄송함)는 자녀가 응답한 것인데, 다른 세 하위변인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도 자녀가 지각한 것을 측정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경로의 정교화와 관련하여, 개인의 누적된 과거 성취도가 현재의 환경요소인 부모자녀관계 변인들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성취압력 등 부모자녀관계 변인들이 공부시간이나 성적 등 행동변인들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직접 연결되는 경로들을 모형에 삽입해서 대안모형으로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러한 정교화를 통해 구축되는 이론모형은 학업성취만을 종속변인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나 삶의 질(박은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신뢰(Lee, Park, & Kim, 2004), 스트레스(박영신, 권혁호, 김의철, 2003), 우울(곽금주, 김의철, 박영신, 1999), 일탈행동(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 인터넷 중독(한상철, 2003)과 같은 청소년의 다양한 행동특성의 형성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분석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한국

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특성에 대한 분석에 국한하기보다, 다양한 행동의 형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상호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복잡한 변인들간의 역동들에 내재해 있는 간명한 원리들에 접근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곽금주,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 문화의 형성요인 탐색: 비행과 우울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111~121.
- 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4). 직장인의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1~152.
- 김명언, 이영석. (2000). 한국 기업조직에서 부하가 상사에 대해 갖는 신뢰와 불신의 기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99~120.
- 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에 관한 중단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초청학술세미나 자료집.
- 김의철. (2000).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과학적 토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1~24.
- 김의철, 박영신. (1999a).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1999b). 서장.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교육과학사. 11~142.
-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문화심리학 총서 2. 서울: 교육과학사.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문은식, 김충희. (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 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7(2), 271~288.
- 박영신. (1989). 한국 학생이 지각한 학업에 대한 성패귀인과 학습동기화과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영신. (2000).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67~97.
- 박영신, 권혁호, 김의철. (2003).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중단적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연구소, 인하교육연구, 9호, 79~107.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 연구, 38(2), 109~146.
-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박영신, 김의철. (2003a).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 연구, 10(1), 139~165.
- 박영신, 김의철. (2003b). 한국 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7(1), 37~54.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 총서 5.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 총서 6.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역. (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 건강 운동 조직에서의 성취. 문화심리학 총서3. 서울: 교육과학사.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초등학교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교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07~145.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27~164.
- 박은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대학생의 한국사회 삶의 질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1~162.
- 방희정. (2000). 한국 사회에서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41~65.
- 이종한. (2000).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 집단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201~219.
- 전경구. (2000). 정서와 건강간이 관계: 문화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175~199.
- 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분석: 부모자녀관계, 학업성취효능감, 과거성취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15~321.
- 정태연, 류원정. (2004). 남녀 아동 및 성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121~139.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중숙, 박영신, 김의철, 허희숙. (2004). 부모에 대한 죄송함과 관련 변인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9~160.
-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0). 한국 심리학의 정체성과 도전: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

- 집호, 1~219.
- 한상철.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접촉 정도와 중독성향에 대한 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9~39.
- 한성열. (1994). 한국문화와 그릇된 교육의식 및 관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95~107.
- Bandura, A. (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Pastorelli, C. (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 1206~1222.
- Chung, K. S., Park, Y. S., Kim, U., & Park, E. S. (2004). Longitudinal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With specific focus on parent-child relationship,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Paper presented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ross-Cultural Psychology, August 2-6, Xi'an, China.
- Kim, U. (1999).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The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19.
- Kim, U. (2001). Ethnography of Korean people and culture. In H. S. Aasen, U. Kim, & G. Helgesen (Eds.),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in Korea: Psychological, polit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pp. 245~278). Seoul: Kyoyookkwahak-sa.
- Kim, U. (2003). Science, religion, philosophy, and culture: Psychological analysis of western, islamic, and east asian worldviews. In U. Kim, U., H. S. Aasen, & S. Ebadi (Eds.), *Democracy, human rights, and islam in modern Iran: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Bergen: Fagbokforlaget.
- Kim, U., & Choi, S. H.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Greenfield & R. R. Coc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Kim, U., & Park, Y. S. (2000). Confucianism and family values: Their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Zeitschrift fur Erziehungswissenschaft*, 3(2), 229~249.
- Kim, U., & Park, Y. S. (2003). An indigenous analysis of success attribution: Comparison of Korean students and adults. In K. S. Yang, K. K. Hwang, P. B. Pedersen, & I. Daibo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Vol. 3* (pp. 171~195).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er.
- Kim, U., & Park, Y. S. (in pres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parents, and culture. To appear i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 Kim, U., Park, Y. S., & Park, D. H. (2000). The challenge of cross-cultural psychology: The role of the indigenous psycholog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1), 63~75.
- Lee, S. M., Park, Y. S., & Kim, U. (2004). Formation and perception of parent-child trust and distrust: The case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Paper presented at the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 August 8-13, Beijing, China.
- Park, Y. S. (2002).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Redefining human agency and meaning systems. Invited address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July, 7-12. Singapore.
- Park, Y. S. & Kim, U. (2003).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digenous analysi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Annual Report of Educational Psychology in Japan* (教育心理學年報), 42, 24~27.
- Park, Y. S., & Kim, U. (2004). Paths to academic achievement, delinquency and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of influences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cultural factors. Keynote address at the 2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ross-Cultural Psychology, August 5, Xi'an, China.
- PISA. (2000). www.pisa.oecd.org.
- Yu, A. B., & Yang, K. S. (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ic societi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239-250).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Zimmerman, B. J., & Bandura, A. (1994). Impact of self-regulatory influences on writing course attain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1, 845~862.
- Zimmerman, B. J., Bandura, A., & Martinez-Ponz, M. (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 663~676.

1 차 원고 접수일 : 2004. 10. 14

최종 원고 접수일 : 2004. 11. 9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With specific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motivation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Uichol Kim

Chung-Ang University
Dept. of Psychology

Kabsoon Chung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This study examines longitudinally influences that parents have on their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mediating role of various psychological factors. In terms of parents-child relationship, the following variables are examined: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parental expectation, sense of indebtedness to parents, and respect for parents. For adolescents functioning, the following variables are examined: Efficacy for self-regulated learning, achievement motivation, studying tim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the first phase of the longitudinal study, a total of 961 Grade 6 stud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In the second phase, a total of 856 stud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when they were Grade 7. In the third phase, a total of 830 stud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when they were Grade 9. In the third phase, a matched sample of 722 fathers and 767 mothers of the adolesc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From the sample, 694 matched sample of adolescents, mothers, and fathers have been selected for the following analysis. The results of the path analysis indicate that adolescents' past academic grade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adolescents' current academic achievement. Second, a sense of indebtedness felt towards the parents increased adolescents' achievement motivation, which increased their studying time and which in turn positively affected their academic achievement. Third, adolescents' respect for their parents increased their efficacy for self-regulated learning, which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Fourth, parental social support increased adolescents' efficacy for self-regulated learning and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increased adolescents' achievement motivation. Fifth, parental expectation had positive influence on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Sixth, efficacy for self-regulated learning had direct positive influence on academic achieve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ast achievement i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of adolescents' current academic achieve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efficacy for self-regulated learning are also important variables that influence adolescents' achievement.

key words : Parent-child relationship, Academic achievement, Longitudinal analysis, Social support, Achievement pressure, Parental expectation,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